

(재)안양문화예술재단
Anyang Foundation for Culture & Arts



vol.19 Mar-Jun 2015 문화토티스트

TOAST

**Magazine of Anyang Foundation
for Culture & Arts**

04 ISSUE INSIDE
더욱 풍성한 기획,
착한 관람료로 시민 걸을 찾아가다

08 INTERVIEW 소리꾼 오정해

20 김중업박물관 개관 1주년 기념 특별기획
여기, 이어지다 : 한·프 건축展
김중업박물관 건축 컨퍼런스

24 박물관과 함께하는 청동기 여행

25 제12기 박물관 대학

34 APAP작품 투어 : 봄패키지

35 공공예술 서점에서

36 ARTIST IN ANYANG
첼리스트 강미사
바이올리니스트 강드보라 자매

40 극단 즐거운 사람들 정기공연
책키와 북키

안양 가족합창단
엄마들의 유쾌한 반란

32
33



토요일아침음악회 Best of Best **12**
오정해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14**
노닥이다

16 뮤지컬 파리넬리

18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쿠르
입상자 초청 음악회 I

26 어린이 상상력 예술학교
움직이는 그림자 여행단

28 안양문화예술재단
문화예술 아카데미

30 2015 안양 아줌마축제

AFCA NEWS **46**

AFCA CALENDAR **47**

42 시설 이용 안내

44 대관 안내

2015년은 'Best of Best'의 해 더욱 풍성한 기획, '착한 관람료'로 시민 곁을 찾아간다

정책기획실장 / 강재선

2015년 봄, 안양문화예술재단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는 새롭고 알찬 기획, '착한 관람료'로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간다. 공연, 전시, 축제, 커뮤니티 사업, 예술교육 등을 통해 시민과 예술을 잇는 튼튼한 가교 역할을 하는 안양문화예술재단의 2015 주요사업 '시즌 1'을 주목하자.

01 토요일 아침의 달콤한 유혹, '평촌아트홀 토요일아침음악회'



올해는 그야말로 'Best of Best'의 해다. 그 서두는 아침음악회가 연다. 지난 2005년 평촌아트홀 개관과 함께 시작해 올해로 열 돌을 맞는 장수 프로그램 아침음악회는 그동안 클래식에 갈증을 느꼈던 안양 시민과의 뜨거운 조우, 품격있는 데이트의 시작이었다. 지난 10년간 빠짐없이 그 주옥같은 무대를 찾았던 한 관객은 '평범한 일상을 살던 내게 영롱한 아침, 그리운 아침, 아름다운 아침을 선사하며 클래식의 세계로 듬뿍 빠져들게 한 마술같은 공연들이었다고 평했다.

특히 주부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지난 10년 간 차곡차곡 다채로운 공연이 많이도 열렸다. 평일 오전, 차 한잔의 여유 그리고 전문가의 해설을 곁들인 클래식 음악으로 주부들을 들뜨게 했던 평촌아트홀 아침음악회는 올해 열 돌을 맞으며 토요일 오전으로 날짜를 옮겼다. 더불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각 연도별로 관객에게 가장 좋은 반응을 얻은 최고의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다시 한번 그 감동의 무대를 재현하는 10주년 특별기념무대 '2015 토요일아침음악회 Best of Best'를 마련했다. 김용배, 정치용, 이성주, 김정원,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음악가들이 다시 모였다. 느긋한 토요일 아침, 평촌아트홀에 오셔서 마술같은 클래식 향기의 유혹에 빠져보시길..

02 공연자와 관객이 함께 노는 신명나는 놀이판 '노닥이다'



'와~ 역시 우리가락이 최고여!~얼썩~ 좋다~' 어르신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하며 많은 사랑을 받아 온 안양문화예술재단의 또 하나의 간판 프로그램 '이판사판 콘서트'가 소리꾼 오정혜의 재치 있는 입담이 가미된 젊은 감각의 국악 토크 콘서트 '노닥이다'로 재단장하고 인사를 드린다. 전통문화의 보급화, 대중화를 위해 힘써오며 상설 국악프로그램의 간판격으로 평가 받는 이 공연에는 그동안 안숙선, 김덕수, 김백봉 등 국내 정상급 국악인들이 대거 출연하며 객석 점유율 79%의 높은 관객호응도를 기록했다.

국악을 어렵고 고루하게만 느끼는 관객들을 우리 가락의 신명나는 놀이판으로 끌어들이고 공연자와 소통하며 생생한 국악의 숨결을 함께 느끼게 하는 놀이 한 마당으로, 어느새 3년을 진행해오며 '어렵고 고루했던' 그 벽을 허물고 남녀노소 모든 관객이 좋아하고 함께 어우러져 흥을 돋우는 인기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았다. The 광대, 불러썬 등 현 시대와 소통하는 한국 최고의 전통예술인들이 무대 위에서, 객석에서 함께 장단을 맞춘다. 20여 년 간 안양에 살며 안양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안양 시민' 오정혜가 맛갈 나는 토크로 그 시동을 걸었다.

03 초록의 5월에 듣는
헨델의 주옥같은 아리아 '파리넬리'



초록의 5월, 안양문화예술재단이 뮤지컬 애호가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단연 '파리넬리'다. 올초, 한국 뮤지컬계에 돌풍을 몰고온 바로 그 화제작이다. 서울에서의 초연 때 각종 언론에서 호평을 많이 받아 평단 및 관객의 집중관심을 끌고 있는 작품이다.

18세기 초, 천부적인 재능으로 유럽 오페라계를 뒤흔든 파리넬리의 실화를 바탕으로한 창작 뮤지컬로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꾸며지는 무대 위에서 카스트라토의 처연하고 슬픈 인생, 그 풍부하고 아름다운 미성을 만끽할 수 있다. 오페레타 형식을 차용한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색다른 뮤지컬 '파리넬리'는 배우, 합창단, 오케스트라단 등 70여 명의 인원이 동원된 대형무대에서 펼쳐진다. 바로크 음악의 진수로 불리는 '사라방드', '올게 하소서' 등 헨델의 주옥같은 아리아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가정의 달 5월에 가족과 함께 보려면 미리 예매가 필요할 듯하다. 수도권에서 대하기 힘든 '착한 관람료'로 안양시민을 모신다.



04 한·불 건축가들의 작품을 한눈에
'여기, 이어지다 : 한·프 건축展'

김중업은 프랑스대사관, 삼일로 빌딩, 평화의 문 설계 등 한국 건축계에 큰 업적을 남긴 우리나라 1세대 건축가이다. 안양예술공원 안의 김중업박물관이 개관 1주년을 맞이했다. 이제 그 소식 속으로 들어가 보자.

김중업은 프랑스의 유명한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로부터 사사받은 첫 번째 한국 건축가다. 프랑스와 한국의 건축을 이어갔던 한 건축가의 소망은 '2015-2016 한국, 프랑스 상호 교류의 해'를 맞이하여 김중업박물관 개관 1주년 기념 기획특별전 '여기, 이어지다 : 한·프 건축展'으로 이어진다. 전시는 3월 27일부터 5월 10일까지, 당시 한국 사람 김중업이 프랑스의 건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현시켰는지 주목할 일이다. 더불어 당시 프랑스와 유럽의 건축 유형, 기법도 기대어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번 전시는 '시간·사람·건축'이 김중업박물관으로 이어진다는 개념에서 출발하여 프랑스 건축가의 한국 프로젝트 자료와 주한 프랑스건축사회 소속 한국 건축가들을 초청하였으며 '장프루베-김중업 건축 장학금'을 수여한 젊은 건축가들의 작품과 함께 풍성한 건축 아카이브 전시를 선보인다.

현대는 소유가 아닌 공유의 시대, 문화는 '공유하는 것이다. 이제 재단이 정성껏 준비한 공연을 시민과 '공유'하는 일만 남았다. 봄바람이 분다. 셀레이는 마음 안고 조금은 봄바람난 여자처럼, 안양아트센터로, 평촌아트홀로, 안양예술공원으로 가보자! 진부한 일상으로부터의 일탈! 그 감성을 일깨우는 행복한 '공유'의 삶이 그곳에 있다.

Inside of Anyang Foundation for Culture & Arts

국악 토크 콘서트 '노닥이다'로 안양시민과 만나는 소리꾼 오정해 '얼썬~ 좋다!~' 객석의 함성이 무대에 녹아든다

인터뷰·글 / 홍성예 (문화 칼럼니스트)
사진 / 나대선



안양문화예술재단이 전통 음악 활성화를 위해 3년째 진행해온 국악 시리즈 공연에 올리는 소리꾼 오정해가 진행자로 나서 신개념의 국악 토크 콘서트 '노닥이다'를 펼쳐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5일(정월대보름) 공연을 성황리에 마치고 안양 시민들에게 행복에너지를 듬뿍 전달한 '안양사람 오정해'를 평촌아트홀의 카페 아트룸에서 만났다.

지난 정월대보름날(3월 5일)에 펼쳐진 '노닥이다' 공연의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지요?

네! 정말 감사드려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객석을 꽉 채워 주셔서 기운이 펄펄 났지요! 추임새도 아주 큰소리로 함께 넣어 주시며 첫 공연부터 너무 좋은 호응도를 보여주셨니 벌써부터 다음 공연(6월18일 단오마중)에 대한 기대감으로 설레고 있어요. 우리 국악 콘서트에 보내주시는 이같은 객석의 응원에 정말 신이 나고 가슴 뿌듯합니다. 더욱이 공연자의 기(氣)를 최대치로 이끌어 내는 훌륭한 관객들이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많은 공연장이 있지만 국악이 정기 프로그램으로 정착해서 대중 속에 녹아들기가 쉽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더욱이 전문 국악당이 아닌 아트센터에서 국악콘서트를 이렇듯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경우가 드문데.. 그동안 안양문화예술재단에서 진행해온 국악프로그램은 관객 참여도도 좋고 '공연보고 나가면서 만족도가 가장 큰 프로그램'이라고 들었어요. 국악인의 한사람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공연 때 갑자기 EBS의 '스페이스 공감' 무대가 생각났어요. 여느 공연장의 10분의 밖에 안되는 작은 공간이라 객석에 숨쉬는 소리까지 전달이 되는 소규모 공연임에도 최고의 예인들이 자신해서 찾는 무대지요. 이제 국악도 안양아트센터 수리홀에 것처럼 천천히 뿌리를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출연진 및 관객의 수준으로 보아 안양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이미 선도하고 있어요. 그런면에서 이번 공연에 저도 더욱 많은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여년 간 안양에서 살고 있는 '안양시민'이시죠?

맞습니다. 저, 시부모님 모시고 남편, 아들과 함께 정확히 19년째 안양에 살고 있어요. 원래 제가 결혼 직후부터 안양에 신혼살림을 차렸어요. 날마다 집 부근의 전통시장에서 장 보고, 집 뒤의 공기 좋은 관악산 아래를 산책하지요. 오랫동안 살다보니 안양은 어느새 제겐 제 2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 되어 버렸어요. 사방팔방으로 교통도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아마 직접 살아보지 않은 분은 잘 모를 거예요. 중간에 2년 정도 잠시 떠난 적이 있었는데 안양이 좋아 다시 이사왔지요. 하하.. 간혹 '안양?' 하고 잘 몰라 되묻는 분들 만나면 정말 답답한 마음이 들어 열심히 설명한답니다. 서울도 가깝고 사통팔달의 교통 요지에, 공기 좋고, 학교 좋고, 문화 혜택도 많고 등등등.. 참 '숲속의 공연장'으로도 불리는 평촌아트홀엔 산책로도 있지요. 산책로가 있는 공연장이 대체 전국에 몇군데나 될까요? 제가 사실 열렬한 '안양마니아'입니다.

INTERVIEW

이번 공연은 우리민족의 풍습을 되새긴다는 의미도 깊어요. 관객을 구경꾼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 안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진정한 놀이판을 형성하고 전통예술인들의 삶과 음악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들도 재미있게 풀어갈 생각이예요.



가정생활도 모범적인 걸로 이웃에 소문이 자자하시던데요?(웃음)

아우, 칭찬의 말씀 감사합니다. 시부모님이 제가 하는 일을 좋아해 주셔서 가능한 거 같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바로 '우리집'이에요. 전 밥도 '집밥'이 가장 맛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우리동네'를 좋아해요. 말씀드렸듯이 집 앞은 4차선 도로라 도시 분위기가 나는데, 집 뒤는 산이 있어 시골 같은 분위기죠. 우리동네 시장(관양시장)에는 그야말로 없는 거 빼놓고 다 있어요. 집 앞 시장에 가면 모든 게 해결되지요. 야채도 싱싱하고, 인심도 후하고, 공기 좋고... 우린 3대가 뭉쳐서 평촌역 부근의 극장에 영화보러도 잘 가요. 저희 식구가 맛있는 음식 먹으려도 잘 다닙니다. 안양이 또 맛있는 음식점 많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곳이지요? 남편도 안양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지역의 여러 여건이 저를 편안하게 하는 것 같아요. 집 주변의 환경과 저희 가족의 기호가 맞아떨어지다보니 집안 분위기도 더 좋아지고 가족간의 친밀도도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안양에 사셔서 집안이 화목하다는 얘기로 해석됩니다.(웃음) 단우, 추석, 동지 등 앞으로도 우리 전통명절과 절기를 전후해서 공연이 펼쳐지게 되는데 함께할 출연진들에 대한 소개를 한다면?

이번 무대는 어느 공연에서처럼 단순한 출연자로서 제 이름만 파는 것이 아닌, 처음부터 실무진과 함께 기획에 참여했어요. 출연진 인선작업도 함께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정해가 이끌어가거든요. 출연자들도 지금껏은 본인 프로그램만 끝나면 바로 갔으나 이번엔 모든 출연자가 함께 끝까지 어우러져 하는 공연형태로 일반 공연과 차별성을 두었고 우리의 전통명절에 맞춰 날짜도 잡았어요. 정말 옛날에는 정이 많은 우리민족은 이런 날에는 이웃과 음식도 나누어 먹고 하며, 살기 바빠서 미처 못 나눈 정을 나누곤 했는데 요즘엔 그런 풍습들이 다 잊혀지고 있지요. 이번 공연은 우리민족의 풍습을 되새긴다는 의미도 깊어요. 관객을 구경꾼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 안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출연진과 소통하게 하여 진정한 놀이판을 형성하고 전통예술인들의 삶과 음악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들도 재미있게 풀어갈 생각이예요. 'The 광대', '블러썸' 등 유쾌한 에너지로 관객을 끌어당기며 현 시대와 소통할 수 있는 한국 최고 수준의 전통예술팀이 안양시민을 기다리고 있어요. 참, 공

연에 함께할 지역예술가도 찾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 스승님들은 그 큰 무대에 제자를 하나 둘씩 꼭 키워 주셨지요. 엄선해서 뽑은 지역 인재에게 무대 경험을 쌓게 하고 또한 다른 지역에 가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공연할 수 있게 키워주려는 의도였죠. 특별한 날에 펼쳐지는 특별한 기회에 재능 있는 안양예술가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소리꾼 오정해'로서의 인생을 반추해 본다면?

제가 판소리의 세계에 입문한지도 어언 30년이 되었네요. 제 일생동안 판소리는 너무 어려워서 못 놓지요. 정말 너무 어려워서 평생 놓을 수가 없는 작업이에요. 판소리는 인내를 알게 하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나와의 싸움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이길래? 내가 이길까?' 하며 평생을 기다보면 사람들은 그를 소리꾼이라고 얘기합니다. 명창들은 득음이라는 경지를 위해서 가지만 제가 아는 한, 제가 가까이에서 본 측근의 선생님들은 득음을 했다고 본인이 말하는 사람이 결코 없었어요. 프로란 만족이 없는 거죠. 소리의 힘은 '자제를 알게 하는 것' 이에요. 그러다보면 겸손을 배우게 되지요. 그리고 그 이치가 모든 세상사의 기본이치라는 걸 깨닫게 되지요. 노래 자체를 대면하지 말고 노래의 희노애락을 알아야 비로소 판소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죠.

요즘 근황은?

요즘엔 콘서트로 사람들 만나는 형태가 좋아요. 지금도 한 주가 꽉차 있어요. 최근에 미스 춘향 출신들의 모임인 춘향봉사단을 만들었어요. 제 성격상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만연니로서 사회봉사도 하고 그 역할을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서 '사회 가장 밑바닥부터 봉사하며 예쁜 소리를 전하자!'는 의미로 이름을 '예음'이라 지었어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공연은 같은 공연이라도 어디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지요. 특히 이번 안양공연은 내 가까운 이웃 분들 모셔놓고 하는 공연이니만큼 우리 국악으로 '정말 내 이웃분들과 함께 오늘 참 잘 놀았다'는 느낌이 들게 힐링타임을 선물해 드려야죠. 관람료도 저렴하니 많이 놀러들 오실거죠?

PERFORMANCE



다시 맛보는 감동의 무대 2015 평촌아트홀 토요일아침음악회 Best of Best



4.4(토), 5.2(토), 6.13(토) 11:00 평촌아트홀

|관람료| 전석 15,000원 ※ 당일 티켓 소지자에 한해 머핀과 아메리카노 커피 세트 3,000원에 구매 가능
|할인| 9회 패키지 티켓 85,000원 / 3회 이상 패키지 티켓 30% 할인 / 골드회원 30% 할인
|소요시간| 80분(인터미션 20분)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지난 2005년 시작되어 10년 간 안양의 대표적인 브런치 콘서트로 자리잡은 평촌아트홀 아침음악회가 평일 오전에서 토요일 오전으로 날짜를 옮겨 'Best of Best' 공연을 선보인다. 지난 10년 동안의 공연 프로그램 중 연도별로 관객들에게 가장 좋은 반응을 얻은 최고의 프로그램을 한 편씩 선별해 다시 한번 그 감동의 무대를 선사하는 <2015 토요일아침음악회-Best of Best>는 올 연말까지 매월 진행되며 김용배, 이성주, 김정원,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 국내 굴지의 클래식 음악가들이 대거 출연한다. 10년의 역사를 총정리하는 품격 높은 토요일아침음악회에서 잊지 못할 감동, 최상의 즐거움을 만끽해 보자.

4월 Again 2006	[출연] 조이 오브 스트링스, 협연_이성주(바이올린) [프로그램] ▶ 모차르트 : 디베르티 멘토 ▶ 비발디 : 사계 中 <봄> ▶ 김한기(편곡) : <고향의 봄> Op.159 (협연_이성주) ▶ 헨리 맨시니 : 영화 <문리버> 삽입곡 ▶ 카를로스 가르델 : 영화 <여인의 향기> 삽입곡 ▶ 쇼스타코비치 : 쇼스타 왈츠 ▶ 로저스 :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삽입곡 ▶ 피아졸라 : 리베르 탱고
5월 Again 2007	[출연] 김정원(피아노) [프로그램] ▶ 슈베르트 : 피아노 소나타 18번 G장조, D.894 등
6월 Again 2010	[출연] 해설_정준호(음악 칼럼니스트), 강혜정(소프라노), 하석배(테너), 코리아 쿵 오케스트라 [프로그램] ▶ 모차르트 : 오보에 콰르텟 F장조, K.370 ▶ 도니체티 : 오페라 <사랑의 묘약> 中 - 받아, 너는 이제 자유야 - 남몰래 흘리는 눈물 - 아디나, 한마디만 들어줘요 ▶ 슈베르트 : 송어(피아노 5중주, D.667, op.114) ▶ 푸치니 : 오페라 <라보엠> 中 - 그대의 찬 손 - 내 이름은 미미 - 오, 사랑스런 아가씨

7월 ~ 12월 일정

Again2008(7.11) : 첼리스트 송영훈
Again2009(8.8) : 피아니스트 박종훈
Again2012(10.10) :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Again2013~14(11.7) : 피아니스트 김용배의 <그 남자의 초대>
Again2011(12.5) : 팀프 앙상블

※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출연진 및 프로그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he광대

블러썸

오정해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노닥이다**

6.18(목) 19:30 안양아트센터 수리홀

|관람료| 일반석 20,000원 / 청소년석 10,000원 |할인| 골드회원 30% 할인 / 2회이상패키지티켓 50% 할인
|소요시간| 100분(인터미션 없음)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지난 3년간 전통음악 활성화에 앞장서며 안양문화예술재단이 진행한 국악 시리즈 공연 (이판사판 콘서트)가 보다 젊은 감각의 새 옷을 입었다. 판소리뿐만 아니라 방송, 라디오 진행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리꾼 오정해가 진행자로 나서 신개념의 국악 토크 콘서트를 펼친다. 정월대보름(3월 5일), 단오(6월 18일), 추석(9월 24일), 동지(12월 17일) 절기를 주제로 진행될 국악 토크 콘서트 <노닥이다>에서는 생생한 연주와 함께 오정해의 재기발랄한 진행으로 전통예술인들의 삶과 음악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오는 6월 진행되는 '단오야중' 공연에서는 국악의 재해석을 통해 현대와 소통하고 있는 국악 실내악 그룹 '블러썸'과 젊은 광대들로 구성된 연희집단 'The광대'가 출연하여 신명나고 위트 넘치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출 연 오정해 (사회), 블러썸 (국악 실내악 그룹), The광대 (연희집단) 등
프로그램

▶ 블러썸 : 인형의 화원, 굿모닝, 눈 먼 사랑 등

▶ The광대 : 판굿 & 소고놀이, 광대재담 & 버나놀이, 사자놀이, 12발 상모놀이 등

※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출연진 및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연

파리넬리 役 : 고유진, 루이스 초이
 안젤로 役 : 안유진
 리카르도 役 : 이준혁
 헨델 役 : 김호섭
 래리먼치 役 : 원종환 등

줄거리

1717년 이탈리아 나폴리. 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카를로 브로스키(파리넬리)로 태어나 신의 뜻으로 카운터테너가 된 '파리넬리'. 그는 형 리카르도와 함께 음악 여행을 시작하며, 천부적인 재능과 노력으로 이탈리아를 넘어 전 유럽을 흔드는 카스트라토가 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형 리카르도의 음악에 회의를 느끼게 되고, 서로를 속고 속이는 냉정한 오페라 무대와 모든 여자들에게 사랑 받으면서도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운명 속에서 갈등하게 된다.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마지막 선택을 해야만 하는데..



월메이드 뮤지컬
 창작 뮤지컬의 자존심 파리넬리

5.30(토) 15:00, 19:00 안양아트센터 관악홀

|관람료|VIP석 60,000원 /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할인|인기카드회원 20% 할인

|소요시간| 160분(인터미션 20분) |관람연령|만 7세 이상



5월, 안양아트센터의 문을 두드리는 <파리넬리>는 '월메이드 뮤지컬', '브로드웨이를 뛰어넘는 뮤지컬'이란 평가를 받으며 2015년 1월 한국 뮤지컬계에 돌풍을 일으킨 바로 그 화제작이다. 창작 뮤지컬로는 보기 드문 완성도로 이미 언론의 많은 호평을 받았다. 초연 후 조선일보는 주역배우의 아찔한 카스트라토 창법에 대한 찬사와 함께 '창작 뮤지컬 같지 않은 창작 뮤지컬'이라고 호평한 바 있다.

영화 '파리넬리'를 본 30, 40대에게 버킷 리스트에 들어갈 뮤지컬로 꼽히는 이 작품은 스크린 안의 감동과는 또 다른 살아있는 라이브의 매력으로 관객들을 사로잡는다. 헨델의 주옥같은 아리아와 현대 뮤지컬의 앙상블, 20여 명의 합창단이 주는 스케일과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까지 더해져 뮤지컬 애호가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헨델의 '리날도' 중 '울게 하소서'가 고음(高音)의 카스트라토 창법으로 극장에 울려 퍼질 때,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달라"는 가사가 전하는 절정의 감정을 객석에서도 온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숨 막히는 그 감동의 순간, 안양 공연에서 만끽하길 바란다.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수상자들과의 조우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쿠르 입상자 초청 음악회

6.27 (토) 17:00 평촌아트홀

|관람료| 전석 20,000원 |할인| 골드회원 30%할인 |소요시간| 90분(인터미션 15분)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세계 3대 콩쿠르 중 하나인 '차이코프스키 콩쿠르'는 3대 콩쿠르 중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경연대회로 인정받는다. 서울시향의 예술감독 정명훈이 1974년, 이 콩쿠르에서 피아노 부문 2위에 입상하고 귀국했을 당시 국가에서 카퍼레이드 및 대통령 만찬 초대 등 국민 대우를 해 주었을 정도이니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의 권위를 알만하다.

이토록 유서 깊은 콩쿠르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입상한 연주자들이 올해 평촌아트홀을 전격 방문한다. 6월과 10월에는 국제적 명성을 자랑하는 음악학교 '모스크바 국립 음대의 교수로 재직 중인 나탈리아 트로울(Natalia Troull) 등 두 명의 러시아 피아니스트가 방문하며, 8월에는 당당히 1위 입상자 명단에 그 이름을 올려놓은, 인양이 낡은 최고의 성악가인 베이스 박종민이 훌륭한 연주 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쉽게 접할 수 없는 이들 최고 실력파들의 무대가 평촌아트홀에서 세 번의 시리즈로 기획되어 안양 시민과 클래식 애호가들에게 선보이게 된다.



나탈리아 트로울(Natalia Troull)

- 모스크바 국립 음악원(Tchaikovsky Conservatory)에서 M. Voskresensky, T. Kravchenko 교수 사사
- 1983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국제 피아노 콩쿠르 1등 수상
- 1986년 제8회 차이코프스키 국제 피아노 콩쿠르 2등 수상
- 1993년 몬테카를로 국제 피아노 콩쿠르 대상 수상
- 러시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일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
- 현재 모스크바 국립 음악원 교수 및 이탈리아의 코모 유럽 음악아카데미(Como Accademia Europea di Musica) 객원 교수로 재직 중

프로그램

- ▶ **Beethoven : Sonata No, 16 in G major Op, 31-1**
I. Allegro vivace
II. Adagio grazioso
III. Rondo, allegretto-presto
- ▶ **Beethoven : Sonata No, 32 in C minor Op, 111**
I. Maestoso - Allegro con brio appassionato
II. Arietta - Adagio molto, semplice e cantabile
- ▶ **Chopin : 4 Scherzos**
I. B minor, Op. 20
II. B flat minor, Op. 31
III. C sharp minor, Op. 39
IV. E major, Op. 54



김중업박물관 개관 1주년 기념 기획특별전 여기, 이어지다 : 한·프 건축展

3.27(금)~5.10(일) 10:00~18:00 ※ 매주 월요일 휴관

김중업박물관 문화누리관 1, 2층 기획전시실

|관람료| 2,000원 |할인| 안양시민, 20인 이상 단체 50% 할인

|전시작품| 건축모형, 사진, 도면, 영상 등 200여점 |문의| 031-687-0909

김중업박물관은 건축가 김중업이 설계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시공간적인 의미가 깊은 박물관으로 2014년 3월에 개관하였다. 건축가 김중업은 프랑스에서 근대 건축의 거장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를 사사한 첫 번째 한국 건축가이다. 때문에 김중업 건축은 르 코르뷔지에의 건축양식과 더불어 당시 유럽의 근현대건축 요소에 한국 전통건축의 아름다움이 결합하여 발전한 양상을 보인다. 이처럼 김중업 건축의 토대가 되는 프랑스와 한국의 건축을 연계하는 동시에 '2015-2016 한국·프랑스 상호교류의 해'를 기념한 <여기, 이어지다 : 한·프 건축展>이 오는 3월 김중업박물관에서 열린다.



로랑보두앵_대전이응노미술관



X-TU Architects_전곡선사박물관



김용미_광주시청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 '시간, 이어지다'에서는 김중업박물관의 장소성에 대한 이야기를 서두로 꺼내어 신라시대에서 현재에 이르는 천 년의 시간을 펼쳐낸다. 2부 '사람, 이어지다'에서는 '장프루베-김중업 건축 장학금' 수혜를 받은 젊은 건축가들의 작품을 통하여 김중업이라는 건축가 한 사람에서 또 다른 사람으로 이어지는 두 나라의 건축 문화 교류의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3부 '건축, 이어지다'는 한국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한 프랑스 건축가와 주한 프랑스건축사회 소속 한국 건축가의 작품이 총 4개의 섹션으로 전시된다.

한국 및 프랑스 초청 건축가 참여

아누 르장드르 & 니콜라스 데마지에르 Anouk Legendre & Nicolas Desmazières(X-TU Architects) / 다비드-피에르 잘리콩 David-Pierre Jalicon / 도미니크 페로 Dominique Perrault / 장순각 Jang Soon-gak / 장 누벨 Jean Nouvel / 장-미셸 빌모트 Jean-Michel Wilmotte / 정재현 Jeong Jae Heon / 정진국 Jeong Jin Kouk / 김동진 Kim Dongjin / 김용미 Kim Yong-mi / 로랑 보두앵 Laurent Beaudouin / 로랑 살로몽 Laurent Salomon(A.S.A) / 이은석 Lee Eun-Seok / 뱅상 코르누 Vincen Cornu / 윤희진 Yun Hee-jin / 장프루베-김중업 건축 장학금 수혜 건축가 12인

※ 본 전시는 주한프랑스대사관, 주한프랑스문화원, 국제도시공간연구소가 후원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ayac.or.kr/museum)를 참조하세요.



김중업박물관은 개관 1주년을 기념하여 <여기, 이어지다 : 한·프 건축展>을 개최함과 동시에 전시연계 컨퍼런스를 열어 전시 관람자들에게 한국과 프랑스 건축에 대한 이론 강좌와 전시를 함께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그 의미를 더하고자 한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전시 참여 건축가인 김용미(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이은석(경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정진국(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이 강연자로 참여한다. 김용미는 이번 전시에 출품한 건축 작품을 다루며 '건축의 공간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진행한다. 또한 국내에서 다작의 교회건축을 수행한 이은석은 근대건축에 뿌리를 두고 성장해온 자신의 건축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뿌리 깊은 건축'이라는 제목으로 풀어낸다. 한편 르 코르뷔지에의 이론에 정통한 정진국은 자신이 출품한 이론과 설계의 균형 속에 작업된 주택 작품을 주제로 한 '거주를 사유하다'라는 제목의 강연으로 집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되짚어 볼 수 있게 한다.

특히 이번 강연에는 건축가 김중업과 비슷한 시기에 르 코르뷔지에 사무실에서 수학한 프랑스 건축가 조제 우브러리(José Oubriere)가 특별 강연자로 초청되어 '근대건축의 공간적 재해석'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이번 전시와 더불어 마련된 강연을 통해 한국과 프랑스의 건축문화 교류현장을 탐험해 보자.

여기, 이어지다 : 한·프 건축展 전시연계 컨퍼런스

4.18(토)~5.9(토) 매주 토요일 14:00~16:00 ※ 총 4회

김중업박물관 안양사지관 2층 기획전시실

|참가비| 40,000(총 4회) ※회차별 참여시 회당 10,000원

|문의| 031-687-0909 www.ayac.or.kr/museum

일정	주제	강연자
4.18(토)	건축의 공간 이야기	김용미(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4.25(토)	뿌리 깊은 건축	이은석(경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5.2(토)	거주를 사유하다	정진국(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교수)
5.9(토)	근대건축의 공간적 재해석	조제 우브러리(오하이오 주립대학교 명예교수)

안양역사관 어린이·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박물관과 함께하는 청동기 여행

4.11(수)~6.27(일) 2·4주 토요일 ※학년별 6회 중 택1 안양역사관
10:00(초등 1~2학년), 14:00(초등 3~6학년 및 청소년 단체)

|교육비|20,000원(경기도민 50% 할인) |접수방법| 인터넷 선착순 접수(www.ayac.or.kr/museum)
|문 의|031-687-0909, 0908



〈박물관과 함께하는 청동기 여행〉은 박물관에서 진행되는 전문적·체계적인 체험·답사 교육프로그램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안양의 청동기시대 유적과 유물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박물관 활동과 답사활동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청동기시대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고 실제 유적지를 답사함으로써 생생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과정	학습내용	강의진행
박물관 활동	영상강의 청동기시대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살펴본다 ▶영상강의	영상자료 ▶교육실(지하층)
	체험활동 지역의 청동기시대 유적과 유물을 통해 선사시대 역사를 알아본다 ▶미션활동	박물관 체험활동 ▶상설전시실(1층)
	만들기 청동기시대 대표적 유물인 청동거울을 통해 청동기의 특징과 의미를 이해한다 ▶청동거울 만들기	만들기 ▶교육실(지하층)

※ 본 프로그램은 '2015 경기도 공립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입니다.

※ 미취학 아동의 참여 및 학년 교차 참여는 불가합니다.

※ 답사활동은 7~8월 중 진행되며, 박물관 체험활동과는 별도로 접수 진행됩니다.

안양역사관 역사학 강좌 : 제2기 박물관대학 고려사 오백년 이야기 - 고려III

4.10(수)~6.5(일) 매주 금요일 10:00 ※총 9회 안양역사관 이론강의실

|대상|19세 이상 성인 |교육비|100,000원※답사비 60,000원 별도
|접수방법| 인터넷 선착순 접수(www.ayac.or.kr/museum) |문 의|031-687-0909, 0908



안양역사관에서는 역사의 걸을 심도 있게 다루는 역사학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안양역사관 역사학 강좌 〈박물관대학〉은 고고학, 미술사, 민속학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열두 번 째 진행되는 이번 강좌에서는 가장 귀족적이고 화려했던 중세문화를 보여주는 고려시대의 다양한 문화적 특성과 정치·경제·사회를 아우르는 다양한 고려사의 모습을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살펴본다.

강좌	일정	주제	강사
1	4.10(금)	고려시대 문벌귀족	박재우(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교수)
2	4.17(금)	고려시대 무역과 바다	이진현(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
3	4.24(금)	고려와 원제국과의 관계	이강현(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사학전공 교수)
4	5.1(금)	고려시대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	박한남(국사편찬위원회 기획협력실 실장)
5	5.8(금)	답사(경북 안동)	정재은(안양역사관 학예연구사)
6	5.15(금)	고려시대 글씨와 송원대 서풍	이완우(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예술학부 교수)
7	5.22(금)	고려청자의 세계	윤용이(명지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
8	5.29(금)	신의 손으로 만든 석조미술	엄기표(단국대학교 평생교육원장)
9	6.5(금)	고려불화의 아름다움과 멋	김정희(원광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 및 강사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상상력 예술학교 움직이는 그림자 여행단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문화예술 체험을 통해 공감과 소통을 이끌어 내고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어린이 상상력 예술학교 <움직이는 그림자 여행단>이 2015년 새롭게 시작된다. 어린이 상상력 예술학교는 다양한 예술적 매개를 이용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참가자들이 일상 속에서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동시에 직접 문화 생산의 주체가 되어 '생활문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움직이는 그림자 여행단>은 '그림자 연극'이라는 독특한 장르를 통해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하면서 스스로 예술가가 될 수 있는 행복한 무대를 제공한다.

일정			프로그램
1회	4.25(토)	14:00~16:00	아무개 씨 인사하는 날 자기소개 및 그림자 친구(아무개 씨) 묘사하기 게임
2회	5.2(토)	14:00~16:00	반응하라, 아무개 씨 음악에 맞춰 천천히 혹은 빠르게 움직이기
3회	5.9(토)	14:00~16:00	느껴라, 아무개 씨 바람소리, 나뭇잎의 속삭임, 돌의 이야기 들어보기
4회	5.16(토)	14:00~16:00	손 그림자 만들기 워크숍 유아를 위한 그림자 인형 제작.
5회	5.23(토)	14:00~16:00	손 그림자 역할극(토론연극)
6회	5.31(토)	14:00~16:00	스토리텔링 동화, 설화, 고전, 우리들의 이야기로 그림자극 만들기
7회	6.13(토)	14:00~16:00	
8회	6.20(토)	14:00~16:00	이야기가 소리가 된다(워크숍) 그림자 인형극에 리듬 입히기
9회	6.27(토)	14:00~16:00	즉흥극(워크숍)
10회	7.4(토)	14:00~16:00	연 습
7.11(토)		17:00	공 연

※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그림자 여행단 1기 참가자 모집

- 모집기간 : 3.16(월) ~ 4.24(금)
- 모집대상 : 안양시 거주, 6세 이상 9세 이하 자녀와 부모 동반(2인 이상)
- 모집정원 : 총 10가족
- 활동기간 : 4.25(토) ~ 7.11(토) 매주 토요일 14:00 ※ 총10회
- 활동장소 : 평촌아트홀 실기교육실
- 접수방법 :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이메일·팩스 접수
- 참가비 : 1가족 당 100,000원
- 문의 : 031-687-0543, 031-687-5002(팩스), afca@ayac.or.kr

안양문화예술재단 문화예술아카데미 2015년 2학기 수강생 모집

5.4(월)~8.22(토) ※ 총 16주 평촌아트홀

|교 육 비| 110,000원 ~ 170,000원(16주) 강좌별상이 ※ 악기구입비, 교재비, 기타재료비 별도

|접수기간| 4.13(금)~4.25(토)

|접수방법| 인터넷, 전화, 현장 접수(평촌아트홀)

|문 의| 031-687-0556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체험과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안양문화예술재단 문화예술아카데미에는 음악, 미술, 무용, 창의예술 등의 다채로운 예술 분야를 향유할 수 있는 이론 및 실습 위주의 40여 개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설렘 가득한 봄, 문화로 일깨우며 감성의 나라를 활짝 펴보자.

개설강좌

|음악 아카데미| 오페라 감상, 클래식 감상, 예술 인문학, 우쿨렐레, 색소폰, 드럼, 플루트, 기타, 성악, 여성 가곡

|미술 아카데미| 미술 감상, 사진 예술, 연필화, 수채화, 유화, 채색화, 문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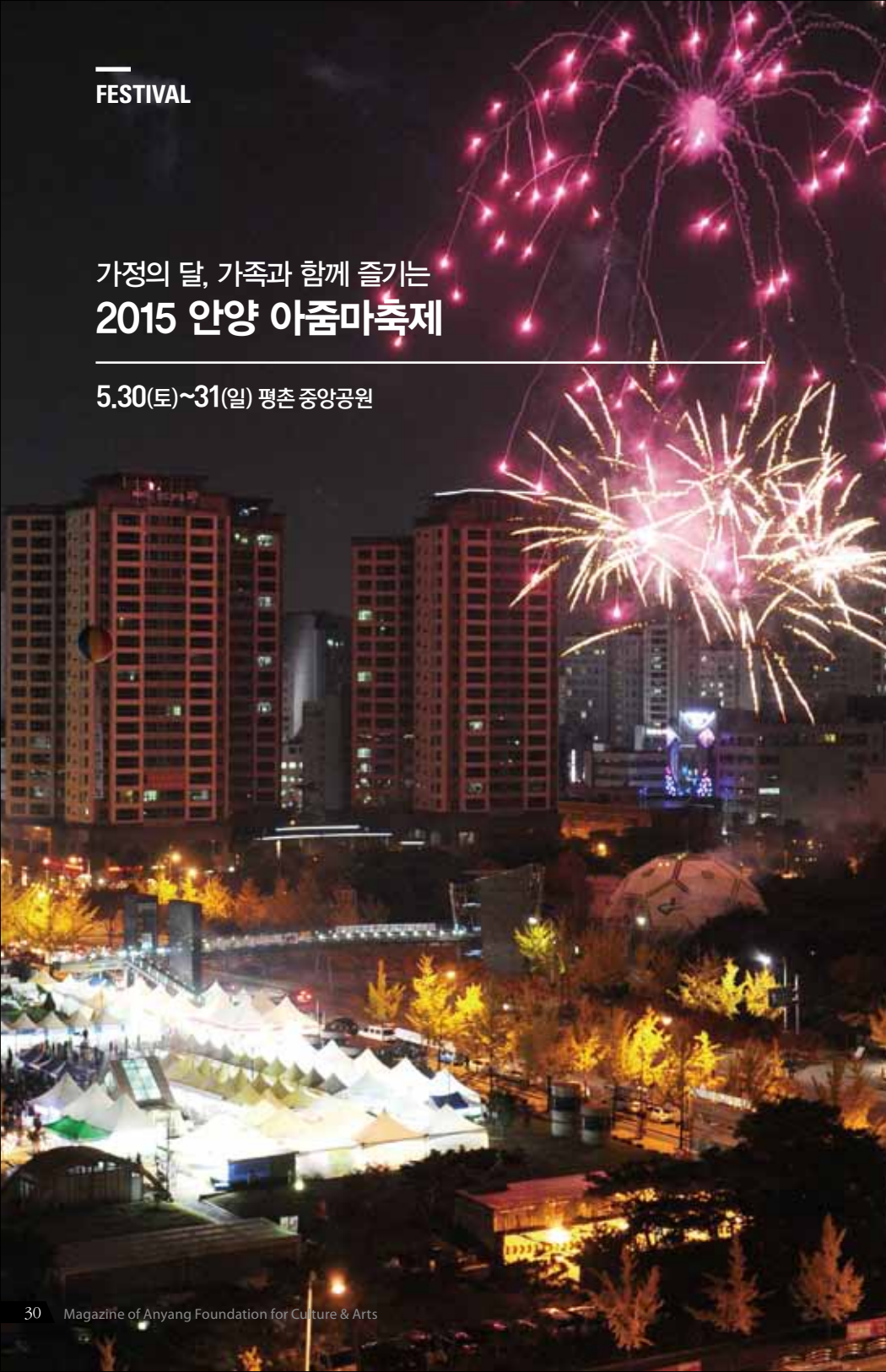
|무용 아카데미| 성인발레, 어린이발레, 한국무용, 필라테스, 라인요가

|창의예술 아카데미| 연극놀이, 뮤지컬 레퍼토리



가정의 달, 가족과 함께 즐기는 2015 안양 아줌마축제

5.30(토)~31(일) 평촌 중앙공원



여성의,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축제 안양 아줌마축제가 열린다. '아줌마'들이 저마다 갖고 있는 재능과 열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무대의 주인공으로 초대해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장이 될 <2015 안양 아줌마축제>는 오는 5월 30일, 31일 양일 간 평촌 중앙공원에서 펼쳐진다.

'여성의 행복이 곧 가정과 사회의 행복이며,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가 곧 좋은 도시'라는 취지에서 안양시와 안양문화예술재단이 마련한 이번 축제는 5월 가정의 달에 가장 고단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아줌마'의 기를 세워주고 흥을 돋워줄 것이며 단지 어느 누구의 엄마, 아내 또는 며느리로 살아가는 아줌마의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참여형 축제로 꾸러진다. 특히 올해 아줌마축제는 가정의 달에 걸맞게 가족 구성원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안양 아줌마축제는 지난 2012년 안양시가 여성 친화 도시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개최되어 왔으며, 올해로 3회째를 맞고 있다.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특별한 하모니 2015 안양 가족합창단 신규 단원 모집



부모와 자녀가 함께 부르는 노래로 화제를 낳고 있는 '안양 가족합창단'이 새로운 가족을 모집한다. 안양 가족합창단은 지난 2011년 5월, 안양문화예술재단의 문화커뮤니티 사업으로 결성되어 5년째 활동하고 있는 전국 최초의 가족합창단이다. 부모와 아이가 노래를 통해 소통하고 나아가 이러한 가족 간의 화합이 자연스럽게 이웃과의 교류로 이어져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내고 있어 더욱 화제다. 안양 가족합창단은 지난 2013년 '전국 문화예술클럽한마당'에서 클래식 부문 1위, 2014년 '경기 생활문화클럽한마당'에서 성남시장상, '2014 전국 생활문화동호회축제'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받는 쾌거까지 이루는 화려한 수상 경력을 자랑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15년 음악을 통해 소통하고 감성을 나눌 신규 가족을 기다린다.



- 모집기간 : 3.23(월) ~ 4.9(목)
- 모집대상 : 안양시 거주, 초등 3학년 이상 자녀와 부모(2인 이상) 동반
- 활동기간 : 4월 ~ 12월 매주 토요일 17:00, 첫 주 제외
- 활동장소 : 평촌아트홀 대연습실
- 접수방법 :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이메일 접수
- 오 디 션 : 4.11(토) 평촌아트홀(자유곡 1곡)
- 문 의 : 031-687-0541, aica@ayac.or.kr

2015 안양 가족합창단 정기공연 초/대/합/니/다

가족이 부르는 특별한 하모니! <2015 안양 가족합창단 정기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며 만들어 낸 아름다운 화음과 선율, 어린 아이들의 귀여운 울음까지 다가오는 봄을 먼저 느끼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일시| 3.28(토) 17:00 |장소| 평촌아트홀 |관람료| 무료(선착순 입장) |문의| 031-687-0541

끼 있는 엄마들의 이유 있는 반란 2015 엄마들의 유쾌한 반란 3기 단원 모집



문화 커뮤니티 '엄마들의 유쾌한 반란(엄유반)'은 주부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 예술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잃어버린 '나'를 찾고, 숨겨진 열정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다양한 꿈의 무대를 준비한다. 엄유반은 2012년 <집에는 좋은 일 있을 겁니다>를 시작으로, 2013년 공동 창작극 <지금, 여기서 행복한 여행>, 2014년 <아름다운 사인(死因)> 등 세 차례에 걸친 정기공연을 했고, 퍼포먼스 공연 <유쾌한 출발>로 거리 예술 활동 및 축제에 참가하는 등 장르를 넓히며 활동하고 있다. 세상을 비추는 거울인 연극을 통해 내 안의 새로운 모습을 찾고 타인과 소통하고자 노력하는 아름다운 여정에 열정 가득한 엄마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 모집기간 : 3.16(월) ~ 4.17(목)
- 모집대상 : 안양시 거주, 연극에 관심 있는 기혼 여성
- 모집정원 : 총 15인 ※ 인원 초과 시 오디션 선발
- 활동기간 : 4.21(화) ~ 12.3(목) 매주 화요일 10:00
- 활동장소 : 평촌아트홀 실기교육실
- 접수방법 :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이메일 접수
- 문 의 : 031-687-0543, aica@ayac.or.kr

※ 2015 엄마들의 유쾌한 반란은 '2015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안양예술공원에서 불어오는 봄바람 APAP작품 투어 - 봄 패키지



〈APAP작품 투어〉는 전문 도슨트가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APAP) 작품을 안내하는 야외 작품 해설 프로그램이다. 봄을 맞이하여 오는 4월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APAP작품 투어-봄 패키지〉는 상쾌한 봄 바람을 맞으며 숲 속 예술작품을 감상한 뒤, 소풍을 위해 제작된 작품에 직접 앉아 향이 좋은 차와 쿠키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된다. 봄 소풍을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간단한 음식을 직접 준비해와도 좋다.

4.1(수)~5.31(일) 평일 11:00, 14:00 / 주말 11:00, 14:00, 16:00

| 소요시간 | 약 90분 | 출발장소 | 안양파빌리온 | 정원 | 회당 40명 | 참가비 | 1,000원
| 준비물 | 개인 이어폰, 편한 복장(운동화 등) | 접수·문의 | 031-687-0548, apap.or.kr

※ 월, 화요일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 APAP작품 투어는 온라인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관람 3일 전까지 예약 가능합니다.

※ 40인 이상의 단체 관람이나 영어 해설을 원하시면 사전에 문의해 주세요.

공공예술을 책으로 만나는 방법 공공예술 서점에서



공공예술의 이론적 배경과 최신 경향 등을 책으로 만날 수 있는 공공예술 서점이 있다. 안양파빌리온(안양 석수동)과 오픈스쿨(안양 비산동)을 방문하면 디자이너가 특별히 제작한 감각적인 책장에 진열된 공공예술 전문 도서 100권을 열람할 수 있으며, 또한 '공공미술 2.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100명의 시민이 직접 낭송하는 100권의 책이 담긴 영상작품도 함께 만날 수 있다. 공공예술에 대한 궁금증, 안양예술공원과 학운공원에서 풀어보자.



[이용안내]

안양파빌리온(안양예술공원 내) : 화~일 9:00~18:00

오픈스쿨(학운공원 내) : 화~금 10:00~18:00, 토~일 13:00~18:00

공공예술 서점에서 www.facebook.com/publicartbookstore

※ 월요일에는 휴관합니다.

※ 〈공공예술 서점에서는〉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공미술2.0'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우린 행복한 음악 자매이자 떨어질 수 없는 음악적 동지

첼리스트 강미사·바이올리니스트 강드보라 자매

글 / 유진 (자유기고가)



안양 비산동에서 한 살 터울로 태어난 강미사(첼리스트 31), 강드보라(바이올리니스트 30) 자매는 비산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러시아로 유학을 떠나 음악영재학교인 샤프테페르부르크와 독일 베를린 한스아이슬러 국립음대를 졸업했다. 어린 소녀였던 두 자매는 서양음악의 본고장인 러시아와 독일에서 16년간의 긴 유학생활을 거치는 동안 어엿한 여인이자 성숙한 음악가로 성장해 지난 2011년 귀국, 왕성한 음악활동을 펼치고 있다.



음악 CEO로, 작곡가로 영역 넓히며 음악봉사

자매가 귀국 직후 첫 인연을 맺은 곳은 음악봉사단체인 '코리아 아트빌리티 체임버(전 에이블 뮤직 그룹)'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국내 유일의 실내악연주전문단체로 이곳에서 언니 강미사는 CEO이자 예술감독으로, 동생 강드보라는 악장으로 함께 팀을 이끌고 있다. 이 팀은 지난해 12월과 올 2월 평촌아트홀서 연이어 두 차례나 연주회를 가지며 객석 전원의 기립박수를 받기도 했다. 강미사, 강드보라 자매는 독일 유학 시절, 베를린 예후디 메뉴힌 'Live Music Now' 음악장학재단의 장학생 및 소속연주자를 역임했고, 현재 둘다 건국대 서울시 음악영재교육원에 출강 중이다. 언니 강미사는 독일 국제 Dotzauer 영 첼로 콩쿠르에서 3위에 입상한 재원으로 앙상블 a2z 멤버, 현대음악앙상블 Edat 정단원으로 바쁘게 활약하고 있다. 동생 강드보라는 러시아 유학시절 전국 영 앙상블 콩쿠르 1위를 수상했고, 작곡분야에도 두각을 나타내어 영화 한경직(한국 박스오피스 7위) 예고편 음악작곡, SBS 일요특선 다큐 '소리없는 세상밖으로' 삽입곡 작곡,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곡 '줄타기'를 작곡했으며 이곡은 뉴욕 카네기홀에서도 연주된 바 있다.

테크닉 이전에 좋은 인성과 올바른 삶의 가치관을 강조한 부모님

어릴 적 한국을 떠난 소녀들이 성숙한 음악인으로 성장하기까지 이들의 음악여정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이는 역시 부모님이다. 10대 초반의 어린 두 딸을 러시아 유학길에 오르게 한데는 부모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했다.

아버지 강경림 씨는 현재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장으로 교회사 교수로 재직 중이며 어머니 조성자씨는 톰으로 음악을 연주하며 매스컴의 조명을 받았던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두 딸에게 자유로운 음악 세계를 열어준 장본인이자 든든한 후원자인 부모님에게 딸딸 강미사는 늘 감사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어릴 때부터 집안에는 항상 클래식 선율이 흘렀죠. 부모님은 저희 자매가 어릴 때부터 '내면의 깊이

첼리스트 강미사



바이올리니스트 강드보라



가 연주의 깊이와 비례한다'며 음악적 테크닉 이전에 좋은 인성과 올바른 삶의 가치관을 우선 쌓을 것을 강조하셨지요. 동생과 저 둘다 피아노도 일찍 배웠어요. 그런데 상급학교 진학을 앞두고 막상 악기를 정해 전공하려 할 때 한국의 선생님들께서 제가 재능이 없다고 모두 반대하는 거예요. 특히 작고 가는 제 손가락으로는 첼로의 지판을 자유롭게 짚을 수 없다고 하셨고, 바이올린을 켜고 싶어하는 제 동생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음악가의 꿈을 꾸던 두 자매가 그 꿈을 접어야 할지를 고민하며 의기소침해 있을 때, 마침 집에는 러시아 유학생이 홈스테이를 하고 있었다. 그는 자매에게 러시아에 가서 음악을 공부하면 어떻겠냐고 제의했다. 음악을 계속 할 수 있다는 말은 단번에 이 두 자매의 마음을 러시아로 이끌었다. 그렇게 러시아로의 유학을 감행했다. 강미사가 열세 살, 강드보라가 12살 때의 일이다.

마음껏 연주하며 다른 예술활동도 맘껏 즐긴 유학생할

강드보라는 그동안 악기 선택에 있어 몇 번의 변화를 겪었는데 그때마다 어머니에게 물어보면 같은 답이 되돌아 왔다고 한다.

"제가 바이올린을 하다가 첼로가 하고 싶다면 어머니는 '그래 그걸 해라'하셨어요. 또 피아노를 전공하고 싶다 하면 '그래 그것도 좋지' 하셨어요. 선택을 강요하지 않고 저희 판단에 맡기시니 항상 최종 결정은 저희들 스스로의 몫이었어요. 부모님은 그렇게 저희에게 자립심을 키워나가게 했던 거지요. 러시아 유학도 최종 결정은 저희 몫이었지요. 음악을 할 수 있다는 희망에 우리 둘은 러시아어도 전혀 모른 채 유학길에 올랐어요. 부모님은 걱정이 많으셨겠지만 우리 의지를 소중하게 여겨 과감

한 결단을 내리신 거지요. 러시아에 처음 갔을 때 러시아 학생들에 비하면 정말 우리 실력이 턱없이 뒤쳐져 있었어요. 사실 그곳서도 한국에서 부딪혔던 똑같은 시련에 직면했어요. 하지만 러시아에서 만난 선생님들은 정반대였죠. 포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또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었죠. 오히려 3년이면 러시아 학생들과 똑같이 될 수 있다며 용기를 심어 주셨어요."

러시아 선생님들의 말에 자매는 다시 자신감을 되찾고 음악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다. 러시아 생활에 어느정도 익숙해지며 둘은 러시아의 또 다른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수많은 연주홀과 박물관이 있는 곳이잖아요. 이들에 한 번씩은 오페라, 연극, 발레, 전시회 등을 보러 다녔어요. 러시아 선생님은 '예술은 하나'라며 폭넓게 경험하라고 하셨지요. 물론 연습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정말 놀랍게도 3년 후에는 우리 실력이 러시아 학생들과 겨룰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아직 어렸기에 음악 뿐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쉽게 흡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마음껏 연주하고 마음껏 다른 예술활동도 즐기 시기였어요."

러시아에서의 유학 생활은 그렇게 강미사, 드보라 자매의 삶과 예술에 이정표를 세워준 시기였다. 둘은 그렇게 명문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영재학교를 졸업하고 독일로 건너가 베를린 한스아이슬러 국립음대에 진학했다.

"러시아가 여러 개의 얼굴 표정을 지닌 나라라면 독일은 고전적이고 변치 않는 얼굴을 가진 나라인 것 같아요. 러시아에서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기를 보내며 위대한 음악가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 감성을 온몸으로 체득했다면 독일에선 보다 정교한 테크닉과 품격, 절제를 배우며 각자 스스로의 음악을 정립하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a2z 트리오'로 더욱 왕성한 연주활동 벌일 터

어려서부터 음악 외길만을 걸어 온 두 자매,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다. 언니 강미사는 에이블 뮤직그룹을 이끈 공로로 지난해 여성신문사가 주는 '2014 여성문화인상'을 수상했다.

"각자의 솔로 활동은 물론이고, 동생과 결성한 'a2z 트리오'(알파벳 a부터 z까지라는 뜻으로 '시작과 끝'이라는 의미)로 보다 활발하게 무대를 넓혀가려 합니다. 올 1월부터는 꿈희망미래재단의 음악콘서트에서 청소년들에게 격려와 희망을 전하고 있어요."

동생 강드보라의 꿈은 바이올리니스트 겸 작곡가다.

"존경하는 음악가는 바이올리니스트 프리츠 크라이슬러와 다비드 오이스트라흐예요. 그들처럼 작곡 능력을 겸비한 음악가로 성장하고 싶어요."

강드보라에게만 고마운 후원자도 있다. 바이올린을 무상으로 대여해 준 조류작악기 조병문 대표다. 그가 빌려준 바이올린은 1847년 제작된 조셉 로카(Joseph Rocca)의 것으로 감정가가 무려 6억짜리다. 특색 있고 매우 좋은 소리를 내는 악기라고 하니 연주자로서는 커다란 행운을 잡아 친 셈이다. 최근 두 자매는 안양 호계동 집 부근에 둘만의 공간인 작은 연습실도 꾸렸다. 이 '아지트'에서 둘은 더 진일보된 음악으로 깊은 호흡을 맞추고 있다. 어릴 적부터 함께 충실히 다져온 음악인생, 두 자매의 2015년이 사뭇 기대된다.

안양문화예술재단 상주예술단체 극단 즐거운 사람들 정기공연 책키와 북키

4.7(화)~4.19(일) 11:00 김중업박물관 어울마당

|관람료| 전석 15,000원(비저정석) |할인| 골드회원 40% 할인 |소요시간| 60분(인터미션 없음)
|관람연령| 만 5세 이상



책은 많은 이야기를 담는다. 많은 사람들이 미처 겪지 못한 세상을 만들어 독자로 하여금 미지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게 한다.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세상 이야기, 역사, 미래, 사건 사고, 심리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책들이 있고 그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담겨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지식만을 외칠 뿐 그 속에 담긴 진실한 감동을 간과한다.

진정한 독서의 가치를 잊은 채 단순한 지식 욕구의 수단만으로 책을 대하는 이 시대에, 극단 즐거운 사람들의 <책키와 북키>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전한다. 책은 삶을 보듬고 마음과 마음을 잇노라고, 책은 직접 만나서 나눌 수 없는 삶의 이야기들을 글자를 통해 나누고, 간접적으로나마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된다. 그러한 책의 가치, 이야기의 가치를 이야기꾼들과 책의 요정 '북키의 존재를 통해 다시 한 번 느껴봄으로써 독서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각박한 현대 사회에서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책과 이야기가 갖는 힘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즐거리

삭막한 거리, 거리 곳곳에 먼지 가득한 책들이 쓰러지거나 고철 무더기처럼 쌓여 있다. 이 세계는 음악, 미술, 책 등이 금지된 세상으로 언제나 뻑뻑이 부대가 감시하며 돌아다니고 있다. 이곳에서 책키는 돌아가신 엄마와의 행복했던 시간, 엄마가 들려주던 이야기들, 그리고 엄마의 유품인 피리를 간직하며 홀로 살아가고 있다. 책키는 뻑뻑이 부대를 피해 음식을 구하던 중 발각되어 책무덤으로 피하게 되고, 우연히 책의 요정 북키를 깨우게 된다. 그렇게 책의 요정 북키는 책키와 둘도 없는 친구가 되고 책키는 북키의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북키에게 들려주며 생활하게 된다. 책키와 북키, 그리고 이야기꾼들이 함께 읽어 주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흥미롭게 펼쳐진다.

예술과 일상이 만나는 문화공간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시설 안내



지역문화 허브의 중심 안양아트센터

안양아트센터는 2010년 옛 안양문화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재개관한 복합문화공간입니다. 대공연장(1,127석), 소공연장(382석), 기획전시실, 컨벤션홀, 야외공연장을 갖춘 다목적 문화예술공간으로 안양의 문화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람객 편의를 위해 서비스 플라자, 카페테리아, 어린이 놀이방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시 속 문화 쉼터 평촌아트홀

안양 자유공원 내에 자리한 평촌아트홀은 잔디마당과 숲 속 산책로 등 자연과 함께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도시 속 문화 쉼터입니다. 콘서트 전용홀로 최상의 음향 시스템과 객석 구조를 갖춘 평촌아트홀은 연주자의 숨소리까지 생생하게 전달하며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공공예술의 모든 것 안양파빌리온



안양 공공예술의 메카, 안양예술공원 내에 위치한 안양파빌리온은 세계적인 건축가 알바루 시자(Álvaro Siza)가 설계한 작품을 2013년 10월 공공예술전문센터로 재조성하였습니다. 총 2천여 권의 공공예술 관련 도서 및 자료가 소장되어 있는 공원 도서관과 4회까지 진행된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의 아카이브로 구성된 국내 유일의 공공예술전문센터로 이곳의 모든 자료는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때에 따라 워크숍, 콘퍼런스, 교육 등 다양한 공공예술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 평일·주말 9:00~18:00, 월요일 휴관

근대건축의 거장이 남긴 소중한 유산 김중업박물관

근대건축계의 거장 김중업 건축가가 설계한 옛 제약회사 공장을 리모델링하여 2014년 3월 개관한 김중업박물관은 전시, 교육, 학술행사, 공연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안양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입니다. 또한 박물관이 자리한 부지에서 과거 고려시대의 고찰 안양사의 터였음을 증명하는 유물이 발견되어 건축유산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의미가 담긴 소중한 공간입니다.



김중업관	안양사지관	문화누리관
김중업 건축가 아카이브 전시(상설)	안양사지 출토유물 전시(상설)	기획 및 특별전시, 교육, 어린이 놀이방, 아트샵, 카페, 레스토랑
관람료 : 무료	관람료 : 무료	기획 및 특별전시는 상황에 따라 관람료 부과

이용시간 : 평일·주말 9:00~18:00(입장은 17:00까지 가능)
월요일, 설날·추석 당일 휴관(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휴관)

※ 상세내용은 홈페이지(www.ayac.or.kr/museum)를 참조해 주세요.

※ 단체관람 및 전시해설을 원하시면 사전에 문의해 주세요.(031-687-0909)

안양문화예술재단 대관 안내

안양 문화예술의 중심, 안양아트센터와 평촌아트홀 공연장 및 전시실의 대관 신청을 받습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은 최고의 시설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량 있는 문화예술단체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대관시설 | 안양문화예술재단 공연장 및 전시장

안양아트센터	관악홀(대공연장)	종합구성물 공연(1,127석)
	수리홀(소공연장)	종합구성물 공연(382석)
	컨벤션홀	539㎡ 규모 행사장(행사, 교육, 워크숍 등)
	갤러리 미담	349㎡ 규모 전시실(레일식 무빙파티션 설계)
평촌아트홀	공연장	클래식 등 연주회 전용홀(638석)
	기획전시실	171㎡ 규모 전시실(레일식 무빙파티션 설계)

접수기간 정기대관(매년 10월), 수시대관(수시 공지)

접수방법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

대관문의 031-687-0514 / ds2obi@ayac.or.kr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문예로 36번길 16(안양동) 안양문화예술재단 문화사업부

※ 상세내용은 홈페이지(www.ayac.or.kr)를 참조하세요.

안양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춘계 정기연주회



지휘 박인수

An Yang

PHILHARMONIC ORCHESTRA

Regular Concert

2015.4.2 (목) 7:30pm

안양아트센터 관악홀

F.Mendelssohn
The Hebrides Overture, or "Fingal's Cave", Op.26

W.A.Mozart
Serenade No.13 in G Major, "Eine Kleine Nachtmusik", K.525

F.Mendelssohn
Symphony No.3 in A "Scottish" Op.56

주최 안양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주관



공연문의 02)585-2934~6 www.pro-art.co.kr

티켓가격 R석 4만원 · S석 3만원 · A석 2만원 (대학생까지 30% 할인, 단체10인 이상 20% 할인)

티켓예매 INTERPARK 1544-1555 TICKETLINK 1588-7890 wonmusic (031)444-8838

안양문화예술재단 임직원 '청렴 결의' 다지며 새해맞이

안양문화예술재단은 새해를 맞이하여 지난 2월 4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재단 임직원들은 최근 저조한 기관 청렴 수준 제고와 깨끗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해 전 직원이 함께 청렴 서약으로 의지를 다지고 앞으로 강도 높은 청렴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캠페인 등을 펼치며 자정 운동을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은 명절을 앞두고 금품 수수 및 향응 제공 금지에 대한 결의문 낭독과 함께 관련 영상을 시청하며 전 임직원의 투명하고 깨끗한 조직 문화에 대한 의식을 환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양문화예술재단은 이와 같은 청렴 결의대회를 통해 조직의 투명성 확대, 실천과 책임성 강화로 시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문화예술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3월 - 6월

	행사명	일시/장소	문의
축제	2015 안양 아줌마 축제	5.30(토)~31(일) 평촌 중앙공원	안양문화예술재단 031)687-0540
	2015 평촌아트홀 토요일침음악회 Best of Best-Again 2006	4.4(토) 11:00 평촌아트홀	안양문화예술재단 031)687-0500
극단 즐거운 사람들 정기공연 책키 북키	4.7(화)~19(일) 11:00 김중업박물관 어울마당		
기획공연	2015 평촌아트홀 토요일침음악회 Best of Best-Again 2007	5.2(토) 11:00 평촌아트홀	
	뮤지컬 파리벨리	5.30(토) 15:00, 19:00 안양아트센터 관악홀	
	2015 평촌아트홀 토요일침음악회 Best of Best-Again 2010	6.13(토) 11:00 평촌아트홀	
	오정해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노닥이다-단오마중	6.18(목) 19:30 안양아트센터 수리홀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우승자 초청공연 I	6.27(토) 17:00 평촌아트홀	
대관공연	어린이 뮤지컬 피노키오	4.22(수) 10:10, 11:20 안양아트센터 수리홀	DUBU기획 02)2654-6854
	가족 뮤지컬 춤추는 태양계	4.22(수)~23(목) 10:00, 11:30 안양아트센터 관악홀	수엔터테인먼트 02)507-2505
	어린이 뮤지컬 애벌레의 여행	5.1(금) 10:20, 11:20 5.2(토) 13:00, 15:00 안양아트센터 수리홀	무지개극단 02)993-9733
	안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37회 정기연주회	6.12(금) 19:30 안양아트센터 관악홀	안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 031)446-8627
	안양시립합창단 제104회 정기연주회	6.23(화) 19:30 안양아트센터 관악홀	안양시립합창단 031)8045-2795~6
전시	김중업박물관 개관 1주년 기념 기획특별전 여기, 이어지다 : 한·프 건축展	3.27(금)~5.10(일) 10:00~18:00 김중업박물관 문화누리관 전시실	안양문화예술재단 031)687-0909
	공연	제12기 박물관 대학 고려사 오백년 이야기 · 고려III	4.10(금)~6.5(금) 매주 금 10:00 안양역사관 이론강의실
안양역사관 교육 프로그램 박물관과 함께하는 청동기 여행		4.11(수)~6.27(일) 2·4주 토 10:00, 14:00 안양역사관	
안양문화예술재단 문화예술아카데미		5.4(월)~8.22(토) 평촌아트홀	

※ 주최 측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양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OAST

Magazine of Anyang Foundation
for Culture & Arts www.ayac.or.kr

(재)안양문화예술재단
Anyang Foundation for Culture & Arts



안양아트센터 | 평촌아트홀 | 안양파빌리온 | 안양역사관 | 김중업박물관 |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

430-82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문예로 36번길 16 (안양동) T. 031.687.0500 F. 031.689.5000